

2017년 12월 22일, 애월읍 용흥리 용흥리노인회관, 강경민 조사.
강동수(남, 1942년생, 애월읍 용흥리)

- 줄거리: 동네 사람 세 명이 목장에서 벌을 관리하고 밤중에 내려오고 있었다. 소왕남도에서 개울을 건너는데 도깨빗불이 왔다갔다 하는 게 보이자, 도깨비에게 홀릴까봐 옷을 벗어서 훈들다가 놔두고 왔다.

[조사자] 도체비 이야기는 안 들어봐낫우과?

[제보자] 도체비 이야기는. 도체비는 우리 동네서 겪은 사람들이 있는데. 건 우리 동네서 가 아니라 저 목장에서. 옛날엔 목장에 숯 같은 거 굽고, 산에 강 일허당 막 밤 중웨언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낫던가 봐.

우리 동네 사름 세 분이 목장에서 벌인가 목장에 놔두고 관리하다가, 밤 중 들 언 오는데. 어디 소왕남도라고 허든데. 그 내창 건너려고 내를 건너려고 허니까 육지는 다리가 없이 그냥 흐르는 물 언제나 흐르는 게 아니니까. 길로 건너는 거긴 오니까 비는 으슬으슬 오는디 불이 막 이리갔다 저리갔다 허니까.

[조사자] 어느 정도 헌 불마씸?

[제보자] 게난 불은 예를 들면, 어린 애 주먹만씩 혈 테주. 추측이. 불이 그레 갓다. 저레 갓다. 혼자 잇엇이민 정신 나갈 정도로 경 허더라고. 경 허난. 겁 나그네 그거 불 웃벗엉 불 이레 갓다. 저레 갓다. 허는 거에 막 훈들리멍 웃 거기 벗어 놔동 왓다는 얘기는 들어난다. 그건 우리 어린 때 들었거든.

[조사자] 도체비가 몸에 달라붙젠 헨마씸?

[제보자] 응. 머리 위로 왓다 갓다 헷젠텐. 셋이니까 견뎌졌덴. 우리 어릴 때 도체빗불 만낭 정신 홀령 허는 얘기 많이 들어낫어. 어떤 사람은 굿도 허드라고. 그 귀신 쫓젠텐.

[조사자] 도체비 만나면 피 내우민 웬다. 돌 닥닥 소리 내민 웬다 허는 소리는 들어낫우과?

[제보자] 응. 우리 어릴 때도 그런 말 들어낫어. 피 내우민 웬다고. 여기도 사람 죽어난 디 그 옛날 폭도들이 군인들 허고 싸완. 총 맞았 죽어난 디. 죽영 내창에 내 불 엇어라. 영 현디 비 오젠 허민 거기 도체빗불 나오메. 그렇게들 허드라고. 그디 도체빗불 보인덴.

- 핵심어: 소왕남도, 도체빗불(도깨빗불), 돌 소리, 굿, 피, 벌, 목장, 도체비(도깨비)